투데이 칼럼

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의 길

김 호 용

전주비전대 교수

국가방위의 마지막 보루는 군대이며 군대의 존재가치는 유사시를 대비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군대는 주기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는 노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투력은 무기와 비무기 등 유형적인 전투력과 정신력과 훈련수준의 무형적인 전투력으로 구성 되는데 우수한 유형전투력이 있어도 훈련수준이 낮으면 패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가방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놓고서 북한은 불을 불이고 정치권이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실기동이 없는 완전축소판 실내 워게임 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쌍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과 민,관,군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있었으나 이또한 북한의 핵개발중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아래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자비한 군사도발은 물론이고, 최근의 사건으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도발로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파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달래며 눈치를 보며 물적 지원방안을 펴가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허망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3위국 중 6위이고 북한은 28위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북한은 이미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등 게임체인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방예산이나 재래식 무기로는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일시적 9.19 군사합의로 표면상으로는 군사적 긴장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도 남북한은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위해서 군비경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란 듯이 어기고 이미 핵개발과 보유를 한 믿을 수 없는 공산 집단이다.

지난 15일에 탈레반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미군철수와 함께 미군수송기로 640여명의 난민이 탈출을 하는 것으로 보며 과거 1975년 4월 베트남공산화 당시 보트피플을 연상케 하는 처절한 현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눈치안보는 강력한 나라와 강한군대가 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를린서 아프간 탈출 촉구 시위 벌이는 시위대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시위가 열려 한 여성이 아프간에서의 대피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캐나다 도착한 자국민과 아프간 난민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착한 캐나다 국민과 아프간 난민들이 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3일 아프간 난민 수용 프로그램 대상을 총 2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사 설

광복회 이강안 도지부장의 과제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光復會)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강안 제13대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장은 도내 항일 애국지사들의 활약상에 여전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개별적인 공적 외에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지부장은"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큰 줄기의 항일 투쟁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벌어진 항일 투쟁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구전으로만 떠도는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조의 항일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서도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항일가문 스토리' 혹은 '지역 항일 애국지사 스토리' 등 흥미로운 이야기로 묶어내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사실 힘들게 살고 있는 유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상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일이다.

유족들의 가슴속에는 응어리가 있다.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권력가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그 세력을 유지했다. 전북지역 항일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데 힘써야 할 때이다.

한편 현재 광복회는 전국에 11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회원 수는 1999년 현재 4천1백 여 명에 이른다. 1949년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이 수여되었다.

그 뒤 1962년 의병장 최익현을 비롯하여 김구·안중근·윤봉길·이봉창·김창숙·조만식·안창호·신익희 등 18명에게 대한민국장이 수여됐다. 장개석(蔣介石)·손문(孫文)·송미령(宋美齡)·진과부(陳果夫)·진기미(陳其美) 등 중국인 5명을 포함한 38명의 외국인도 있다.

전북경찰청의 법 최면 수사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 법 최면 〉 전문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 최면 수사는 최면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학 수사의 한 분야이다.

범인의 얼굴이라든지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수사의 단서 또는 그런 상황들을 재구성한다. 사건의 피해자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해내지 못할 때 필요한 수사 기법이다.

최면을 이용하여 잠재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끌어내 범인의 단서를 찾아내는 기법을 말한다. 법 최면 수사는 전북지역에서 1년에 20건 가까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도 많이 활용된다.

법 최면 수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다. '잠이 드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를 내가 알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이 있는 것이다. 사실 법 최면 수사로 주요 사건에 도움을 주고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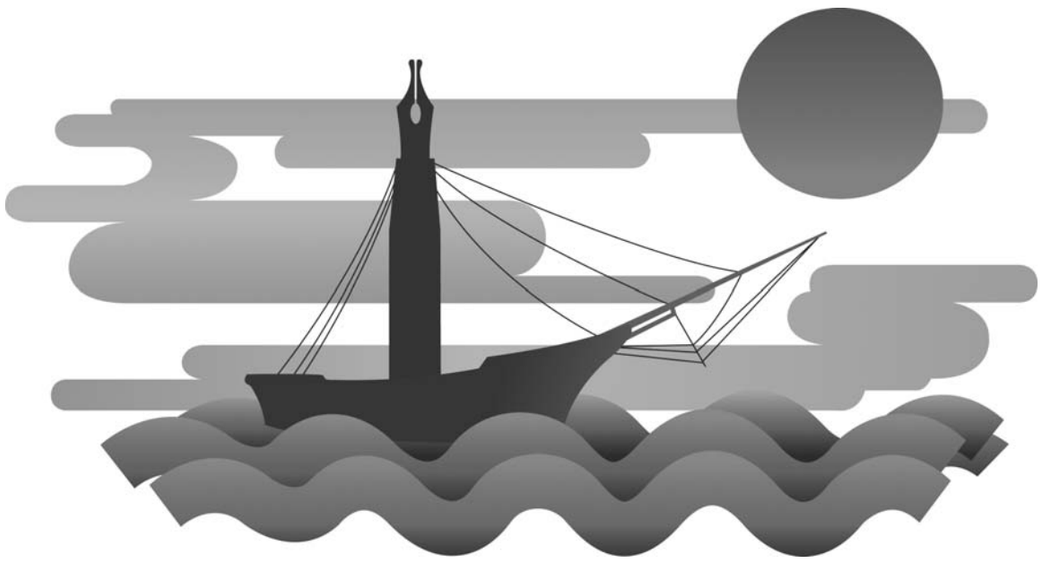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경찰 수사에 과학이라는 분야가 접목된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기법은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최면 수사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다루기 때문에 최면 상대와의 신뢰 관계 등 고도의 심리 기술과 숙련이 요구된다. 최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반면 법 최면 수사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끌어내는 전문 수사관만의 영역이다. 매스컴에서 흥미 위주로 보여주는 최면술과는 차이가 있다. 철저하고 치밀한 과학 수사만이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법 최면 수사 기법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 수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